

정책자료 2007-04

보건의료부문 국제협력 증진방안
모색 결과보고서

-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홍보관 운영

강 유 구

김 보 현

김어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I.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의 국제협력활동	6
III. 우리나라의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의 국제 협력 내용	12
부록	31

I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관련정책의 수립 및 실시의 경험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가의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사업은 서태평양지역 보건의료사업의 향상 및 회원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WHO 서태평양지역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보건의료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에 소개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의 국제협력활동

■ 배경

- 2007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가 2007년 9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에 따라 각 국 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보건의료분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하니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받음(보건복지부 국제협력팀-2282).
-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7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제58차 WPRO RCM 홍보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팀-29).
-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 9일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기간동안 설치될 한국의 보건의료 홍보관의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홍보관 참가대상인 국내 보건의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이계홍 연구혁신본부 정책홍보팀장이 참석함(보건복지부 국제협력팀-2586).
- 보건복지부는 2007년 8월 14일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한국 보건의료 홍보관 참가 기관의 홍보계획 발표회를 개최함. 발표회 참가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총 12개 기관이었음. 기관당 5분간 홍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연구혁신본부 국

제협력팀 김보현 연구원이 참석함(보건복지부 국제협력팀-3076).

■ 홍보관 기획 및 운영

□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홍보자료 및 홍보부스를 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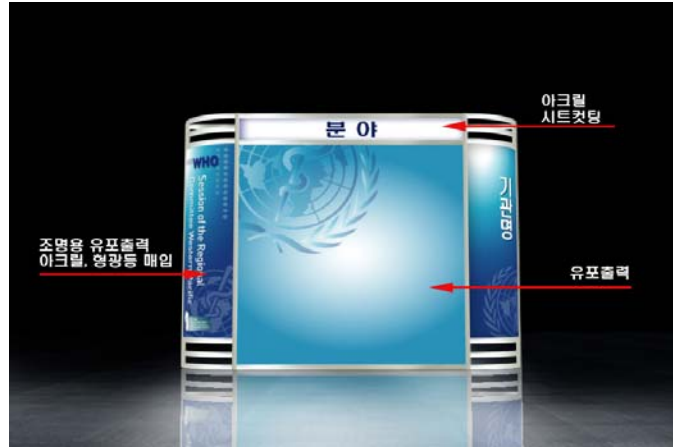
○ 홍보관 운영 참여자

- 기획: 이상영(보건의료연구본부장)
강유구(국제협력팀장)
최은진(건강증진기획평가팀장)
이계홍(정책홍보팀장)
- 행사참여: 김보현(국제협력팀 연구원)
김어지나(건강증진기획평가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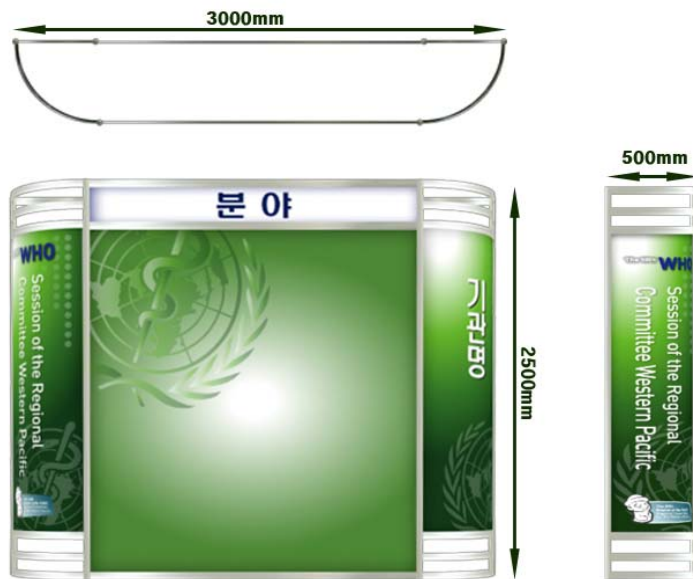
○ 홍보관 운영방안

- 규모: 한 기관 당 3m×2.5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보자료 전시 및 배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보관 방문 각국 대표단 및 관련 단체에
현장상담 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념품 증정

< 홍보부스 재질 및 시안 >



< 홍보부스 규모 >



-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기간인 2007년 9월 10일~9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제협력팀 김보현 연구원과 보건의료연구본부 건강증진기획평가팀의 김어지나 연구원이 홍보관을 운영하여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 참석한 550여명의 관계자들에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 주관 보건의료정책 연수사업, 건강길라잡이 및 금연길라잡이 등을 소개함.

■ 홍보관 홍보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개

- Founded in 1971 and now affiliated with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is a leading think tank commit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and welfare systems. KIHASA's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rests on its research activities running the gamut from national surveys to highly intensive policy analyses. Visit KIHASA's Website at <http://www.kihasa.re.kr/html/jsp/english/> or email to sunduru@kihasa.re.kr for further information.

□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연수사업 소개:

“Sharing Korea's Health Experience with the World”

- International Workshop on Health Policy and Program Management is a fortnight's training course. The workshop is delivered at KIHASA once a year on a wide array of themes including long-term health plan and evalua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promotion,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and women's health. Designed to share the Korean experience with participants, most of whom are health officials and expe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raining course employs such participatory techniques as discussion, group tasks, presentation of country reports, and brainstorming.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foldflow@kihasa.re.kr

□ **건강길라잡이 소개: “Empowering People with Better Health Information”**

- Since launched in 1998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IHASA,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Information System has contributed a great deal to health education for all Koreans. At <http://healthguide.or.kr>, the web-based system provides a wealth of most updated health information. Topics on the Health Guide cover virtually every conceivable aspect of today's healthcare in Korea, including disease prevention strategies, drug information, and hospital administration. Also, this is an excellent storehouse of health statistics and education materials, newspaper and broadcast reports, expert views, research outcomes, webzines, self-diagnosis tools, and question-and-answer services. Visitors to this Website last year numbered 2.2 million.

□ **금연길라잡이 소개: “Guide to a Smokeless Korea”**

- Korea's high rate of smokers put the health of many of its people under jeopardy, which called for an effort to implement a national smoking cessation program. An integral part of such an effort was the establishment

in 2001 of the portal site geumyeon gillajabi (<http://nosmokeguide.hp.kr>). A rich wellspring of smoking cessation information, geumyeon gillajabi features, to name a few among many others, smoking cessation classes for different groups of smokers, e-counseling, expert columns, and no-smoking webzines. The number of visitors to geumyeon gillajabi in the year 2006 alone exceeded 2 million, of whom well over 50% were from out of the country.

Ⅲ. 우리나라의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의 국제 협력 내용

■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행사개요

- 회의명: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58th Session of the WHO Regional Committee for the Western Pacific)
- 기 간: 2007. 9. 10.(월) ~ 9. 14.(금)
- 장 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550여 명
 - WHO 사무총장 및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27개 회원국 보건부장관 및 대표단 등
 - 정회원국 27개국: 한국,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솔로몬군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티, 통가,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피지, 부루나이, 다루살람, 사모아, 마셜 제도, 호주, 투발로,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연방, 캄보디아, 몽고
 - 국내 관련 부처 및 단체, 학계 등
- 행사요약
 - WHO 서태평양지역총회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증진 및 WHO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서태평양지역 내 정부대표

가 참석하여 WHO 보건사업을 기획·실행·평가하고 이와 함께 국가간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서태평양지역 내 가장 중요한 보건 관련 행사임. 이번 제 58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주최,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 주관으로 개최되었음. 이번 회의에서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WHO 사무총장인 Margaret Chan,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Shigeru Omi 등 참석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생활습관병 예방, 금연운동, 전통의학연구에 대한 실천방안 등에 대한 사업을 논의하였으며, 9월 10일 오전 환영식을 마친 후 공식적인 홍보관 방문 일정이 진행되었음.

< 제58차 서태평양 지역총회 전경 >



□ 회의일정

시간	9.10(월)	9.11(화)	9.12(수)	9.13(목)	9.14(금)
09:00~10:00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10:00~10:15	환영식 (ICC 탐라홀A)	*대표단 포토세션			
10:15~10:30		휴식			
10:30~12:00	보건의료 홍보관 방문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및 폐회식 (ICC 탐라홀B)
12:00~14:00	환영오찬 (ICC 포이어) 장관님주최오찬 (신라호텔 로터스룸 /수석대표)	오찬 (ICC텔리자아) 일본주최오찬 (하이아트 오미마켓 그릴 /수석대표)	오찬 (ICC텔리자아) 호주주최오찬 (ICC 텔리자아 /수석대표)	오찬 (ICC텔리자아) 의장주최오찬 (파라디이스호텔 /수석대표)	환송오찬 (해비치호텔 야외가든)
14:00~15:15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15:15~15:30	휴식				
15:30~17:00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본회의 (ICC 탐라홀B)	
17:00~19:00	자유시간				
19:00~20:00	보건복지부 장관 주최 만찬	WPRO 사무처장 주최 환영만찬 (ICC 오션뷰)	중국주최만찬 (모리화 /수석대표)	제주도지사 주최 만찬 (ICC 한라홀)	
20:00~21:00	(신라호텔 한라홀)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주최 만찬 (ICC 오션뷰)		

■ **홍보관 운영**

□ 개요: 이번 홍보관은 서태평양지역총회 최초로 운영되었으며 선진화된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기술 및 WHO 분담금 규모 세계 11위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협력 사업을 회원국에 소개하고자 하였음. 보건정책, 질병관리, IT·보험, 민간단체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12개 기관이 참여하였음.

〈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보건의료 홍보관 참여기관 〉

보건정책 분야	질병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 대한결핵협회 ■ 국립암센터 ■ 대한적십자사
IT · 보험 분야	민간단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한간호협회 ■ 대한병원협회

〈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보건의료 홍보관 전경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원 소개 및 연수사업, 건강길라잡이, 금연길라잡이를 중점으로 홍보하였는데, 특히 이번 지역총회는 WHO 서태평양 지역이 회원국들 간의 협력 하에 담배와의 전쟁의 선봉에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첫 번째 WHO 지역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보사연의 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임. 또한 회의에서 오미박사가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심장병 발생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비전염성 질환 방지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언하여 건강길라잡이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내용구성에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음. 이와 함께, 교육용 자료로 발간된 금연홍보용 “너구리와 곰 이야기” 등 아동교육용 책자와 여성보건책자 등에 관심이 많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보관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산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보관에서는 1) 보건산업 발전전략수립 및 정책기획 연구, 2) 국내외 보건산업에 대한 분석 및 정보제공, 3) 보건서비스 향상 등 정부사업의 효율적 지원, 4) 보건산업체 전문인력 교육, 5) 보건산업체 기술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6) 보건산업체 경영·기술지원, 7) 보건산업체 전문인력 교육 등을 소개하였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보관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은 2003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이 된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빈곤국가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대외무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재단은 긴급구호활동을 비롯하여 북한과 개발도상국, 재외동포 및 국내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홍보관 >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의 전파 방지, 효과적인 예방, 진단, 치료법의 개발, 신종 전염병 발생 방지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조직임을 홍보하였음. 특히, 결핵 및 AIDS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시각자료를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음.

< 질병관리본부 홍보관 >





□ 국립암센터

-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암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암연구·진료·교육 전문기관임. 이번 홍보관에서는 국립암센터가 새로운 암 예방·진단·치료법을 개발·지원하여 우리나라 암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진료부문에 서 세계적 수준의 암 진료 능력을 확보하고 연구중심, 환자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암 조기진단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하였음.

< 국립암센터 홍보관 >



□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결핵협회

- 대한적십자사(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는 구호사업, 안전사업, 청소년사업, 보건사업, 봉사사업, 국제협력사업, 남북교류사업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대한결핵협회(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는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계몽, 홍보, 교육에 대해 홍보하였음.

<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결핵협회 홍보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은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며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이번 홍보관에서 이에 대해 소개하였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관 >



□ 대한한 의사협회

- 대한한 의사협회(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는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한의학의 발전과 학술연구에 대한 사항, 한의학술의 국제교류에 제반 사항 등에 대한 협회의 주요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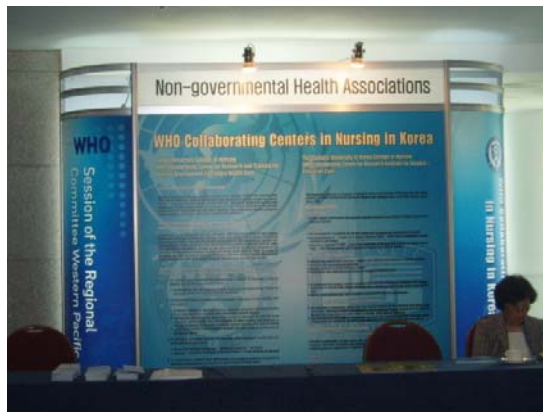
< 대한한 의사협회 홍보관 >



□ 대한간호협회

- 대한간호협회(Korean Nurses Association)는 1949년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 정식가입한 이래 회원국으로서 국제기구 및 ICN 회원국과 다양한 교류증진은 물론 ‘동아시아 간호포럼,’ ‘한·중 간호포럼’을 창설해 주도적으로 아시아권 간호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홍보하였음.

< 대한간호협회 홍보관 >



□ 한국건강관리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는 보건교육사업, 비전염성 만성질환 예방검진 사업, 건강증진관련 조사연구·학술활동, 국제교류사업 등을 소개하고 한·중 기생충 감염관리 시범사업, 한·몽골 건강증진 시범사업 등 각종 보건의료단체와의 정보 교류의 활성화 등에 대해 홍보하였음.

< 한국건강관리협회 홍보관 >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병원협회(Korea Hospital Association)는 전국 병원전산망 구축 추진, 의료분쟁예방 및 조정, 국제교류 및 유대 강화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세계 병원 경영인들의 최대 학술대회인 200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5차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및 학술대회를 홍보하였음.

< 대한병원협회 홍보관 >



□ 故 이종욱 박사 기념전

-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장 바깥에는 전 WHO 사무총장을 역임한 故 이종욱 박사의 기념전이 개최되었음.


< 故 이종욱 박사 기념전 >



부 록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WHO 보도자료(국문)
3. WHO 보도자료(영문)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small>MINISTRY OF HEALTH & WELFARE</small>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 10일	매 수	총 12매	
		보도일시	9월 11일(화) 조간			
	국제협력팀	팀 장	허 영 주	☎	2110-6134	
		연 구 관	배 근 량	e-mail	bgr824@cdc.go.kr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개최

- 보건분야-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제주ICC)에서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내 정부대표가 참석하여 WHO 보건사업을 기획·실행·평가와 함께 국가간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서태평양지역 내 가장 중요한 보건 관련 행사이다.
- 주요 인사로는 변재진 장관과 함께 WHO 사무총장인 마가렛 찬(Dr Margaret Chan),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시게루 오미(Dr Shigeru Omi), 회원국 장관급 수석대표 33명이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생활습관병 예방, 금연운동, 전통의학연구 등에 대한 실천방안 등에 대한 논의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서태평양지역총회 최초로 「보건의료 홍보관」을 설치하여 선진화된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기술 및 WHO 분담금 규모 세계 11위의 위상에 걸맞는 활발한 국제협력 사업을 회원국에게 소개하고 있다.
 - 홍보관은 보건정책, 질병관리, IT·보험, 민간단체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또한 회원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보건부 장관들과 세 차례의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는 아태권역 개도국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교육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개요, WHO사무총장 및 WPRO 사무처장 이력

붙임자료 1.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개요

□ 회의 유지 의의 및 추진 배경

- 이종욱 WHO 사무총장 배출('03)을 계기로 높아진 아국 위상에 걸맞는 서태평양지역 회원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 공고히 하기 위함.
- 중국, 베트남 및 태국 등 주요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아국의 선진화된 보건의료제도(건강보험, 전염병감시체계 등) 연수를 위해 인적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 지역회의 개최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소개 홍보하는 등 아국의 서태평양 보건의료정책 개발·협력의 중심 위치 공고화

□ 추진경과

- 2003년 9월 WPRO에서 2006년 또는 2007년 지역회의 유치의향 전달
- 2004년 9월 제55차 지역회의 시 뉴질랜드 측과 타협하여 제57차는 뉴질랜드, 제58차는 우리나라에서 개최기로 결정 (WPR/PC55.R10*)
 - ※ 1996년 제47차 회의 개최 이후 10년만에 아국에서의 개최
- 2006년 7월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 구성
- 2006년 8월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 개최지 제주 선정

- 입출국, 교통 편리성, 숙박편리성,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 고려 등을 감안하여 제주로 선정 (후보지역: 부산, 경주, 제주)
- 2007년 3월 제58차 RCM 준비 TF(실무준비단) 구성
- 2007년 5월 WHO와 제58차 서태평양지역회의 대한민국 개최에 관한 협정서 체결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58th WHO Western Pacific Regional Committee Meeting)
- 목 적: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증진 및 WHO관련 사업 등에 대한 논의
- 주 최: 보건복지부
- 주 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 일 시: 2007. 9.10(월)~ 9.14(금)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참석인원: 550여명 (국외 260명, 국내 290명)
 - WHO 사무총장 및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 호주 등 회원국 수석대표 33명
 - 국내 관련 부처 및 단체, 학계 등
- 공용어: 영어, 불어, 중국어

○ 참가예상 국가: 31개국

[정회원국 27개국]

한국,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솔로몬군도, 싱가포르, 쿡 제도, 키리바티, 통가,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피지, 부루나이, 다루살람, 사모아, 마셜 제도, 호주, 투발로,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연방, 캄보디아, 니우에, 몽고

[준회원국 1개국] 토켈라우**[속령지 (3개)]**

미국(괌, 북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 프랑스(뉴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윌리스 푸투나), 영국(핏케언 제도),

□ 회의 전체 일정

	9.10(월)	9.11(화)	9.12(수)	9.13(목)	9.14(금)
09:00~10:00	환영식 (ICC 탐라홀A) *수석대표 포토세션	본 회의 (ICC 탐라홀B) *대표단 포토세션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10:00~10:15		휴 식			
10:15~10:30		휴 식			
10:30~12:00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및 폐회식 (ICC 탐라홀B)
12:00~14:00	환영오찬 (ICC 포이어)	오찬 (ICC텔리자아)	오찬 (ICC텔리자아)	오찬 (ICC텔리자아)	환송오찬 (해비치호텔 아외가든)
	장관님주최 오찬 (신라호텔 로터스룸 /수석대표)	일본주최 오찬 (하이얏트 오미마켓 그릴 /수석대표)	호주주최 오찬 (ICC 텔리자아 /수석대표)	의장주최 오찬 (파라디스 호텔 /수석대표)	
14:00~15:15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15:15~15:30	휴 식				
15:30~17:00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본 회의 (ICC 탐라홀B)	
17:00~19:00	자 유 시 간				
19:00~20:00	보건복지부 장관 주최 만찬 (신라호텔 한라홀)	WPRO 사무처장 주최 환영만찬 (ICC 오션뷰)	중국주최 만찬 (모리화 /수석대표)	제주도지사 주최 만찬 (ICC 한라홀)	
20:00~21:00			한국국제보 건의료재단 주최 만찬 (ICC 오션뷰)		

□ 주요참석자

○ 주요 인사

-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 시계루 오미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26명)

-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 외 21명
- 한상태 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외 2명

○ 국외 참석자(260여명)

- 회원국 수석대표(보건부 장관) 33명 및 대표단
- WHO 및 WPRO 사무국
- 국외 NGO 및 Observer

○ 국내 참석자(260여명)

- 주요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장
- 의과대학장, 간호과대학장 및 보건대학원장
-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

□ 주요 의제

-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경과보고
 - 영아생존율: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자보건
 - HIV/AIDS, 결핵 퇴치
 -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 조류 및 신종 인플루엔자, 국제보건규칙, 신종 질병에 대한 서태평양지역전략
- 지적재산권, 혁신, 공중보건
- People at the Center of Care Initiative
- 후속보고 사항
 -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 흡연관리
 - 정신보건
 - 전통의학
- 세계보건총회, 집행위원회, 지역위원회 간 업무 조율
- 정책 및 조정 위원회 회원국 선출 (생식보건 연구, 개발, 연구교육 특별프로그램 담당)
- 공동조정 위원회 회원국 선출 (열대성 질환의 연구 및 교육 특별프로그램 담당)

□ 한국 보건의료 홍보관

○ 목적

-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보험, 질병관리 등 선진화된 보건의료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에게 소개함으로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국제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요

- 규모: 1기관 당 3m×2.5m
- 참가대상: 국내 보건의료 관련 기관 중 홍보자료 전시·배포 희망 기관
- 홍보관 분류: 보건정책, 질병관리, IT·보험, 민간단체 분야
- 운영방안
 - 참가비는 무료(단, 홍보부스 제작 및 설치·운영은 기관 부담)
 - 국내 보건의료 기관 홍보자료 전시 및 배포
 - 홍보관 방문 각국 대표단 및 국내 관련 단체에게 현장 상담
- ※ 제주 ICC에서 홍보테이블 및 전기 제공, 인터넷 연결은 별도 신청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발전된 보건의료 분야를 홍보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외 참여국의 관심 증대 및 벤치마킹 유도

- 한국의 보건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 참가기관

보건정책 분야	질병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질병관리본부 <li style="width: 50%;">■ 대한결핵협회 <li style="width: 50%;">■ 국립암센터 <li style="width: 50%;">■ 대한적십자사
IT · 보험 분야	민간단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대한한 의사협회 <li style="width: 50%;">■ 한국건강관리협회 <li style="width: 50%;">■ 대한간호협회 <li style="width: 50%;">■ 대한병원협회

붙임자료 2. WHO 사무총장 및 WPRO 사무처장 이력

WHO 사무총장 Dr. Margaret Chan 이력서

□ 경력

2007~현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2005~2006: 세계 보건 기구의 전염병부 부총재와
대유행 인플루엔자부 총재의 대리

- WHO의 국가 전염병 대비 체재 마련을 위해 노력

조류 인플루엔자와 다른 전염병의 대응을
세계적인 규모로 지휘.

- WHO의 전염병 감시와 대응, 등한시되는 열대병, 열대병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끔.

2003~2005: 세계 보건 기구의 인간환경보존부 과장

- 다른 지역사무소 그리고 관련자들과 WHO의 건강한 환경 만들기 운동을 지휘

1994~2003: 홍콩 보건부 국장(Director)

- 정부의 보건정책과 전략에 마련을 보조
- 음식, 약, 금연 관리, 한약과 사 병원등과 관련된 보건 규제 담당
- 이 지역 보건 서비스를 이끌고 관리 감독
- 보건부의 1차 의료 서비스를 관리



1992~1994: 홍콩 보건부 차장(Deputy director)

- 인적자본 관리와 관련된 정책/전략과 보건 서비스 행정을 포함한 보건부의 총체적인 관리를 도왔다

1989~1992: 홍콩 보건부 과장(assistant director), 개인 보건 서비스

- 보건교육, 산모와 아동건강, 가족계획, 외래환자와 사회 보건 서비스의 이행을 관리

1987~1989: 홍콩 보건부 주의무관, 보건 행정

- 1차 의료와 개인 건강관리의 운영을 감독

1985~1987: 홍콩 보건부 보건 선임의무관, 가족 보건 서비스

- 산모와 아동건강 그리고 가족계획 서비스 관리
- 보건 직원 관리와 교육

1978~1985: 홍콩 보건부 의무관, 산모와 아동 보건 서비스

□ 국제 보건 기구 경력

2000~2002: WHO 마약 규제당국 2001 준비 위원회 국제회의 의장

2000: WHO의 전통의학 평가 방식에 관한 정책 팀 의장

1999~2000: WHO 담배규제의 틀 설립을 위한 워킹그룹 부의장

1999: WHO 서태평양지역 사회 안전망 라운드 사회자

1998: WHO 제 49회 서태평양 지역 위원회 의장

1992: WHO 제 43회 서태평양 지역 위원회 조직자

□ 학력

1966~1969: Northmost 대학 교육학 (홍콩)

1970~1973: Western Ontario 대학 학사, 캐나다

1973~1977: Western Ontario 대학 의학박사, 캐나다

1977~1978: 인턴, 빅토리아 병원, 런던, Ontario 캐나다

1984~1985: 싱가포르 대학 보건대학원, 싱가포르

1991: 개발 경영 프로그램, Harvard Business School, 미국

1996: 중국연구 수업, 칭화대학교, 중국

2000: 고등 중국연구 수업, 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 중국

□ 수상경력

1997: Royal College 의대의 보건학부 회원

1997: Officer, Oder of the British Empire, 영국

1998: Mahidol 왕자 보건상, 태국

WPRO 사무처장 시게루 오미 이력서

【개인사항】

- 성 명: 시게루 오미
(OMI, Shigeru :尾身茂, 男)
- 국 적: 일본
- 생년월일: 1949. 6. 11
- 가족관계: 부인 및 자녀



【학 력】

- | | |
|-----------|---------------------|
| 1967~1968 | 포츠담 중앙고등학교 (미국, 뉴욕) |
| 1969~1971 | 게이오 대학 법학부 |
| 1972~1978 | 지치 의과대학 (MD) |
| 1989 | 지치 의과대학 (Ph.D) |

【주요경력】

- | | |
|------------|-------------------------|
| 1999. 2~현재 |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
| 1998~1999 | 지치 의과대학 교수, 후생성 기술자문관 |
| 1995~1998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전염병예방관리국장 |
| 1993~1995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면역국 지역자문관 |
| 1990~1993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면역국 의무관 |
| 1989~1990 | 후생성 의료보험국 의료경제과 사무관 |
| 1986~1989 | 지치 의과대학 면역교실 연구원 |
| 1978~1986 | 도쿄지방정부 공중보건국 의료과 의무관 |

붙임자료 3. WHO 분담금 납부현황

□ 분담금 납부근거

- WHO 헌장, WHO 재정규칙
- 매 회계년도(2년 단위) 분담율은 WHO 정기 총회에서 결정
- 분담률 산정방식은 3년 단위로 결정되는 유엔의 최근 분담률에 의함.

□ WHO 총예산 증가내역

(정규예산, 단위: 천 \$)

구 분	'92~'93	'94~'95	'96~'97	'98~'99	2000~01	2002~03	2004~05	2006~07
총 예산	763,760	822,101	842,654	842,654	842,654	855,654	880,111	915,315

□ 우리나라 분담금 및 수혜금 현황

(단 위: 천\$)

구 분	1992	199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분담액	728	2,440	3,280	4,025	4,118	4,118	4,171	5,062	7,817	7,817	8,020	8,020
분담률	0.21	0.68	0.80	0.99	0.99	0.99	0.99	1.20	1.82	1.82	1.769	1.769
수혜금	694	694	470	470	646		434		45		45	

* 우리나라는 WHO 분담금 납부 공여도 11위

○ 최근연도 WHO 국가예산 감소현황(단위 : \$)

구 분	1996~1997	1998~1999	2000~2001	2002~2003	2004~2005
우리부 기술협력사업	1,291,100	939,300	645,500	434,000	0
주한 WHO 연락사무소	919,900	919,900	767,500	767,000	45,000
계	2,211,000	1,859,200	1,413,000	1,201,000	45,000

* OECD 가입 등으로 지원받는 규모 현저히 감소

* 2004년도 이후 연수 등 각종 사업 지원 전면 중단(정규협력예산 전액 CLO 운영비)

2. WHO 보도자료(국문)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Public Information Office

Tel: (63 2) 528 9991

Email:

PIO_Unit@wpro.who.int

WHO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역내사업 검토

제 58차 WHO 서태평양 지역 총회

대한민국 제주도 2007년 9월 10 14일

대한민국 제주 ___ 2007년 9월 -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WHO 보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5일에 걸친 사업검토를 시작했다.

시게루 오미 박사는 오늘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 감염 사례 발생에 대비한 행동계획 수립, 결핵, HIV/AIDS, 말라리아와 같은 다양한 건강 관련 이슈들에 대해 보고했다.

보건 의료 수준

오미 박사는 지역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인간 보건의료 계획”(People Health Care Initiative)이라는 정책 초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 정책안은 보건의료를 더 균형 있고 통합적이며 환자중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1월에는 관련 자료도 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 인플루엔자

오미 박사는 H5N1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역내 여러 국가와 이웃 지역에 고착화됨에 따라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만약 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감염 사례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차단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항바이러스 의약품, 개인 보호 장비, 기타 물품의 비축은 방정식의 한 부분일 뿐,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라고 오미 박사는 말했다.

결핵 관리

서태평양 지역은 WHO에서 2005년 중간 목표를 달성한 첫 번째 지역이자 유일한 지역이다. 2005년 중간 목표는 예상 결핵감염 사례의 70% 발견, 그 중 85% 사례의 성공적 치료, 인구 100%에 대해 WHO가 추천한 “직접 감시 단기 치료”(DOTS)에의 접근성 확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HIV/AIDS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30만 명의 HIV 감염자가 살고 있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HIV/AIDS는 아직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신규 감염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와 같은 국가에서는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분명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기로 인한 질병

말라리아 이환율과 사망률은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유행하는 국가들 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약물 저항성 균주가 질병관리 노력에 지속적인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덴기열과 덴기출혈열은 서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보건 의료 문제로 남아있다.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의 WHO 지역사무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덴기열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역간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몸을 쇠약하게 하고 외관을 손상시키는 질환인 림프사상충증 퇴치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한국도 올해 말까지 림프사상충증의 전염 차단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를 마치고 중국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약품

WHO는 안전하고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

해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개발된, 전산화된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위조약품 신속 경보 시스템 (Rapid Alert System for Combating Counterfeit Medicines)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공급망에서 위조 약품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흡연 규제

WHO 서태평양 지역은 회원국들과의 협력 하에 담배와의 전쟁의 선봉에 서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첫 번째 WHO 지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비전염성 질환

오미 박사는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심장병 발생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비전염성 질환 방지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역총회는 오미 박사가 WHO 지역 사무처장 자격으로 일하는 마지막 지역총회가 될 것이다. 오미 박사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의료 시스템 개발, 지구 온난화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더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인터뷰를 요청하시고자 할 경우
Ms Marilu Lingad(Tel. +63 917 844 368,
email: cordingleyp@wpro.who.in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Press Release

Public Information Office

Tel: (63 2) 528 9991

Email:

PIO_Unit@wpro.who.int

WHO's governing body reviews WHO's work in the Western Pacific
Fifty-eighth Session of the WHO Regional Committee for the Western Pacific
10-14 September 2007, Jeju, Republic of Korea

Jeju, Republic of Korea, 11 September 2007—The Regional Committee for the Western Pacific began its five-day review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ork in Asia and the Pacific to ensure that WHO's health programmes, in collaboration with Member States, are effective and are on track.

Dr Shigeru Omi today reported to the Regional Committee, WHO's governing body in the Region, on a number of health issues such as the creation of a new initiat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the assurance of an action plan should a human pandemic associated with avian influenza were to break out in the Region and progress made in addressing the problems of tuberculosis, HIV/AIDS and malaria.

Quality of health care

Dr Omi will present this week a draft policy framework, People Health Care Initiative, for the endorsement of the Regional Committee. The framework focuses on developing health care that is more balanced, holistic and people centred. A related advocacy book is also expected to be published in November.

Avian influenza

Dr Omi called on Member States to maintain constant vigilance as the avian influenza virus, H5N1, continues to be entrenched in several countries in the Region and in neighbouring regions. "If a human pandemic associated with avian influenza were to break out in our Region, rapid containment would be our highest priority. Building a stockpile of antiviral drugs,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and other supplies is only one part of the equation—deploying those supplies is the other," Dr Omi said.

Tuberculosis control

The Western Pacific Region has become the first and only WHO region to meet the intermediate 2005 targets—detecting 70% of estimated cases, successfully treating 85% of those cases, and ensuring that 100% of the population has access to the WHO recommended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course (DOTS). Despite this progress, however, much more needs to be done to address problem areas within countries, such as multidrug-resistant TB.

HIV/AIDS

HIV/AIDS continues to be a challeng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ere an estimated 1.3 million people were living with HIV at the end of 2006. However, progress has been apparent in both the declining prevalence of new cases in countries such as Cambodia,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receiving antiretroviral therapy such as Papua New Guinea.

Mosquito-borne diseases

Malaria morbidity and mortality has continued to decrease in most endemic countries in the Region, but drug-resistant strains are continuing to hamper control efforts.

Dengue fever and dengue haemorrhagic fever remain major public health problems in many countries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The WHO Regional Offices for the Western Pacific and South-East Asia are working together to develop a biregional framework to prevent and control dengue in Asia and the Pacific.

There is good news regarding mosquito-borne disease with China having achieved a public milestone with the elimination of lymphatic filariasis, a disease that is debilitating and disfiguring.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follow suit as it takes the final process of verifying the interruption of the transmission of filariasis by the end of this year.

Essential medicines

WHO continues to work with Member States to increase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medicines. In addition, the Rapid Alert System for Combating Counterfeit Medicines, a computerized information-sharing network developed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s now being replicated globally, thus, helping authorities identify fake drugs in the supply chain.

Tobacco control

The WHO Western Pacific Region, in collaboration with its Member States, has been a leader in the fight against tobacco. The Region also takes pride in being the first WHO Region to have all Member States ratify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Noncommunicable diseases

"Efforts to combat noncommunicable diseases continue to expand in the Region as we battle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eart disease,"

Dr Omi said.

Next year's Regional Committee will be Dr Omi's last session as WHO Regional Director. Before he winds down his second term, Dr Omi said he will have more to report on important issues such as health systems development and global warming.

For more information or request to interview WHO specialists, please call Ms Marilu Lingad at (63) 918 918 1094; email: lingadm@wpro.who.int or Mr Peter Cordingley at (+63) 917 844 368; email: cordingleyp@wpro.who.int.